

강 성 익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ang Sung-ik, KIRA

동양의 베니스 - 소주와 항주

Shouzhou and Hangzhou - Venice of the East

여행이란 스스로를 편안한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수반하는 이질적인 세계로 끌어내는 일이다. 여행에 나선다는 것은 단 하나의 나라를 만나러 가는 길이며, 바로 그 별도의 자기애의 회귀, 또 다른 인생의 향수인 것이다.

평소에 등산과 여행을 좋아하는 건축사 몇 명과 함께 상해, 소주, 항주 3박4일(05. 6. 5~05. 6. 8)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작금의 건축계 현상에서 잠시나마 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자는 위안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비교적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코스를 택하였다.

6월 5일(일) 첫째 날

예정시간보다 3~40분 늦게 출발한 상해항공 FM 828기는 상해 푸둥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상하이에 들어서는 첫 관문인 푸둥 국제공항은 외국의 여느 국제공항과 비슷한 모습이다. 시내로 들어오는 고가도로 옆으로 공항과 푸둥지역을 잇는 시속 430미터의 자기부상열차가 지나간다.

도시가 변하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변한다. 상하이의 인구는 1,400만이 넘는다고 한다. 거리를 메우고 있는 상하이인들은 이미 '인민복'

따위는 벗어 던진지 오래다. 사람들의 모습은 경쾌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걸음을 재촉한다.

상해는 중국최대의 공업 도시이자 항구도시이며, 북경, 천진과 함께 중국의 3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건축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중국고전양식의 건축과 서구식, 일본양식과 모던한 스타일의 건물들이 시가지를 메우고 있으며 2000년도 말까지 20층 이상의 건물이 1,478동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언뜻 보기에도 매우 역동적이고, 시가지가 매우 잘 정돈되어 있으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같아 보인다.

상해임시정부청사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상해임시정부청사였다. 마당로에 있는 3층 벽돌집으로 1926~1932년까지 청사로 사용하던 곳이다. 1층에서 비디오텍을 한 후 2~3층의 전시관을 관람하게 되며, 당시에 쓰였던 가구들과 서적,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홍구공원

다음에는 매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홍구공원을 방문하였다. 아쉽게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에는 청조말의 혁명가이며, 철학자이고 문학가인 로신 선생의 동상이 있었고, 공원 내의 한편에 윤의사의 기념관을 지어 놓고 유품과 사진이 걸려있으며 안내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상해서커스

저녁 식사 후에 중국 최고라는 상해서커스를 관람하였다. 그네뛰기, 접시 돌리기, 팽이 돌리기, 외출나무 뿔뛰기, 마술 등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압권은 오토바이 타기였다.

지름이 10미터도 안되어 보이는 철망으로 만들어진 원형의 공간 내에서 고속으로 좌우상하 자유자재로 오토바이를 타는데 처음에는 현대의 오토바이만 타다가 현대식 늘어나서 나중에는 7대의 오토바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 쉿쉿 굉음을 내며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이것은 도저히 실재의 인간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마지막 날 상해에 다시 와서 나머지 관광을 하기로 하고 다음 여행지인 항주로 향하였다.

이날 오후 3시 넘어서 푸둥 공항에 도착한 후 강행군하여 3군데 관광을 마친 후, 고속도로를 3시간 정도 달려 항주로 이동하였다.

너무 무리한 일정 같았으나 스케줄대로 따라할 수밖에. 3시간의 버스 여행이 지루하다고하니, 이곳 중국에서는 2~3시간 거리정도는 이웃집에 놀러가는 정도란다. 밤 12시가 지나서야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이곳에서 연길까지는 2박3일을 꼬박 가야한다고...

6월 6일(월) 둘째 날

지난밤의 강행군에도 끄떡없이 아침 5시 반 모닝콜, 7시 조찬, 7시 30분 모두 버스에 승차, 항주의 관광이 시작됐다.

항주는 절강성의 소재지이며 23개 성 중에서 끝에서 3번째로 작은 성인데, 인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4,300만 명이고, 중국이 자랑하는 명승지의 하나이며 물산이 풍부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

이태리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항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로 평가하였으며, 예로부터 '인간천당', '녹색천당'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중국의 5대강인 양자강, 황하, 주강, 회화, 전단 강 중 하나인 전단 강이 흐르고 있으며, 수양제 시대에 1,754킬로미터의 경향 운하를 건설하여 일찍부터 경제가 많이 발달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길고, 역사가 오래된 운하로 차, 도자기, 실크가 특히 유명하다.

육화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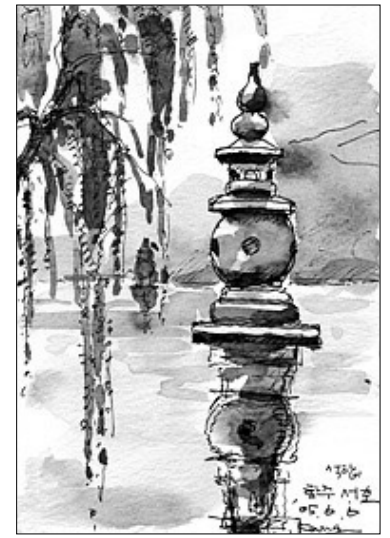
항주 남쪽 전단강가 월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13층처럼 보이나, 안에는 7층의 8각으로 되어있는 탑이다. 동, 서, 남, 북 그리고 하늘과 땅(그래서 6화이다)이 화합하여 전단강의 대 역류를 막아달라는 기원으로 세운 탑이며 밤에는 등대역할도 하고 있다.



육화탑

영은사

백마사, 소림사와 함께 중국의 10대 고찰중의 하나로 서기 326년에 지어졌다. 대웅보전에는 33.6미터 크기의 석가모니 불상이 있다. 또한 바위절벽에는 470여 각 가지 석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송나라 때에는 3,000명의 수도 스님이 있었다고 한다.



서호



영은사 석상



서호 풍경

서호

중국에는 서호라는 이름을 가진 호수가 367개나 있는데, 항주의 서호가 그중 제일이다.

호수에는 3개의 석등이 있는데 각기 5개의 구멍이 나왔다. 가을 달밤에 석등에 불을 밝히면 모두 15개의 빛이 새어나오며, 물에 비추니 30개가 되고, 하늘의 달 그리고 물위의 달, 사람의 눈에 2개, 마음의 달 그렇게 해서 35개의 달이 있다고 한다. 유람선을 타고 서호를 한바퀴 돌면서 보이는 산하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용정차농원

중국에서는 일찍이 차 문화가 발달하였다. 기름진 음식을 즐겨 섭취하고, 많은 양의 식사습관을 가지고 있는 탓인지 항상 차를 마신다. 이곳에서 나는 용정 차는 녹차의 일종인데, 이곳 메가우에서 나는 용정차를 최고의 차로 알아준다.

용정차는 몸의 해독제 역할을 하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 피를 맑게 하고, 이뇨작용을 돕는 등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란다.

'차'를 한자로 풀어서 쓰면 108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차를 많이 마시면 108세까지 무병장수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 모두 차를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비교적 일찍 일정을 끝내고, 발 마사지로 지친 몸과 발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했다.

6월 7일(화) 셋째날

소주는 강소성 남부의 양자강 삼각주 평원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2500년 된 오래된 도시이고, 오·월시대에 월나라의 수도였다.

예로부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며, 동양의 베니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름난 물의 도시이다.

서한 초기에는 동남부의 최대도시로 번영하여 '사주지부(비단의 도시)', '어미지향(바다가 가까워 살기 좋은 곳)', '원림지도(정원의 도시)' 등으로 칭해졌다.

항주에서 소주까지 버스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인치동 건축사의 재치 있는 사회로 각자 자기소개와 인사말 그리고 이철재 사모님의 노래실

력은 기성가수를 넘었고, 권태정님의 건강강좌와 이번과 같은 여행을 계속해서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회원님과 사모님들의 구수한 와이킵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동을 하였다. 월나라에는 궁녀 중에 '서시'라는 중국의 4대 미인중의 한사람이 있었는데, 날아가는 기러기가 서시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떨어졌다고 해서 일명 '라견'이라고도 하며, 하늘의 달이 서시를 쳐다보고 그만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었다고 해서 '패월'이라는 별칭이 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역사 중에 오자서의 둘째이들 '부처'가 복수를 노리면서 장작위에 누워 자면서 곰 쓸개를 씹었다는 '와신상담', '동시'라는 여인이 '서시'와 같이 예쁘게 보이려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인상을 쓰고 다녔다는 '설상가상', '부처'가 왕이 되기 위해 재상 오자서에게 뇌물을 계속해서 갖다 주었다는 '뒷문거래' 등의 예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소주

호구탐

호구 산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높이는 47.7미터이고 소주의 상징이기도 하다. 목구조로 되어있고 외벽은 벽돌이 쌓여있다. 이탈리아의 피사의 탑과 같이 한편의 기초가 가라앉아서 북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춘추시대 오왕인 합려가 이곳 연못 아래에 묻혀 있다고 전해지며, 합려의 무덤을 만들 때 관속에 명검 3,000개를 함께 묻었다고 한다.



호구공원

한산사

한산사는 육조시대에 세워진 고찰로 당나라 시인 장계의 '몽교야 박'이라는 시로 유명해진 절이다. 시내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 차례 전란으로 소실되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청나라 시대(1911)에 지어진 것이다. 당나라 때의 한산신님과 습득신님을 모시고 있는 절이다.

달은 지고 까마귀는 우는데 / 풍교에는 고깃배 등불을 마주하여 시름 속에 자고 / 고소성 밖 한산사에는 / 한밤중에 종소리가 객선에 이르네.

졸정원

유원, 이화원, 승덕이궁과 함께 중국4대 정원 중의 하나이다.



한산사

명나라 정덕 4년(1509년)에 지어졌다. “줄자가 정치를 한다”, “미천한 행 정가의 정원”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나라의 의사이고 바르말 을 잘하는 지사이며, 중앙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고향에 돌아와 칩거를 하며 비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왕헌산’이 조성했다고 한다.

화원은 동, 중, 서 세부분으로 나뉘며, 명대의 전통 건축양식이 잘 반영되 어 있다. 모든 창살의 무늬가 형태가 다르며, 총면적은 16,000평이고, 그중 3/5정도가 연못이다. 연못을 중심으로 작은 정자나 복도, 산 모양을 한 석가 산이 만들어져 있고, 방 안에서 사방의 경치를 다 볼 수 있도록 사면을 유리 문으로 만든 원향당 등 이색적인 건물인 견산루, 파산랑, 비파, 해당, 파초가 뻗뻗이 들어선 비파원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돌덩이 하나, 나무 한그루, 연못, 그리고 건물들, 모두가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비경이다.



졸정원

창살 상세



졸정원

상해 동방명주탑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기둥이라는 뜻의 동방명주탑은 황포강의 동편인 포동지구에 위치한 TV 방송국건물이며 세계에서 3번째로 높고 아시아에서 는 제일 높은 468미터이다.

전망대는 263미터 높이에 있으며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기존 시가지인 포서지구와 포동지구가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야간에 내려다 본 상해 시는 그야말로 불야성이며, 이곳 상해시의 야간 조명을 위해 인근 2개성의 저녁시간에 매일 1시간씩 단전까지 한다.

1991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완공한 이 탑은 상해의 발전, 성장을 한마 디로 표현하는 듯 싶다. 인근에 있는 88층 높이의 진마오 타워를 비롯한 많 은 건물들은 외관이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기발한 디자인으로 이곳이 천지 가 개벽한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외탄야경과 황포강 유람선

외탄은 포서지역에 황포강의 제방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데 외탄에서 보는 포서지역의 건물들은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된 이후 국내외의 새로운 문 물을 흡수함과 동시에 은행과 호텔, 관공서 등 서양식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구라파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 하다.

중국에서 가장 긴 양자강이 상해시의 북측에 위치하여 태평양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포동과 포서를 갈라놓은 황포강과도 연결이 되어있다. 19세기 의 작은 어촌이었던 곳이 개항 150년 만에 동아시아의 금융과 무역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황포강의 유람선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합창하며 기념촬영도 하고 상해에 서의 마지막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유람선에서 보는 상해의 야경 또한 가관이였다. 건물모양도 가지각색이거 니와 야간 조명도 각각 특색이 있었고 지나가는 여객선과 유람선의 뱃고동 소리가 어울려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

중국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못해보는 것이 3가지가 있다.

첫째, 전국 여행을 못하고, 둘째 중국에서 나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볼 수 가 없고, 셋째 한문을 다 익힐 수가 없다.

상하이의 힘은 극단적이고 미묘한 공존이 아닌가 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 고 미래가 뒤섞여 있는 공간, 그 사이를 시계추같이 왕복하며 간극을 채워가 는 상하이인들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야말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이 도시 의 매력이 아닌가 한다.

6월 8일(내뺨날)

아침 5시 30분 모닝콜,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아침을 때우고, 공항으로 출발, 이렇게 우리일행의 상하이, 소주, 항주 3박 4일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번 여행에 함께해주신 건축사들께 불편하고 힘든 일정을 잘 참아주시고 협조를 잘 해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들 건강 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해 본다. ㄹ



외탄야경



홍구공원에서 기념촬영